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마지막날 또 터졌다

### 풍림과마텍, 웨일엔터프라이즈와 미국시장 진출... 5000만달러 추가 수출계약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마지막날인 24일, 5,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추가로 진행되며 이번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5천만불 수출계약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상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우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계약의 주인공들은 (주)풍림과마텍(회장 조희민)과 웨일엔터프라이즈(Whale Enterprise LLC, 회장 이경철)로, 의료기기 품목 5,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 원장과 조희민 풍림과마텍 회장, 이경철 웨일엔터프라이즈 LLC 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주요임원 10여 명이 참석해 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마지막날인 24일, 기업전시관에서 열린 (주)풍림과마텍과 웨일엔터프라이즈(Whale Enterprise LLC) 5,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조희민 풍림과마텍 회장, 이경철 웨일엔터프라이즈 LLC 회장, 김우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주요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며, 향후 추가 계약의 가능성을 열었다. (주)풍림과마텍은 주사기, 주사침, 바

조 공급하는 회사이며, 웨일엔터프라이즈 미국 조지아주 노크크로스 소재한 기업으로 글로벌 PPE(의료용 개인용 보호장구) 공급업체이다. 이번

계약식으로 유통 판매 제품군의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형 계약의 주인공인 이경철 회장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으로서, 미주총연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지역대회인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상덕 재외동포총장은 "이번 대회 상담 건(3.3억달러, 10월 23일 기준)을 추적 관리하여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대회 한상회 온라인 플랫폼,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통해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실질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이뤄진 수출계약 성과에서 의미가 깊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복잡한 금융, 쉽게 풀어낸 지니TalkTalk”

### 지니포럼, 도민·대학생들의 재테크 궁금증 한 방에 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제5회 지니포럼(GENIE Forum)과 연계해 도민과 대학생들을 위한 금융토크콘서트 '지니TalkTalk'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복잡한 금융 개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이번 콘서트는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다.

이번 금융토크콘서트는 도민의 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니포럼의 메인 행사인 국제금융컨퍼런스와 함께 준비된 특별 행사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250만명을 자랑하는 삼프로TV의 이진우 부사장과 금융투자 전문 채널 '박곰희TV'를 운영하는 박곰희 대표가 강연자로 참여해 실생활에서 유용한 금융 지식을 공유했다.

이진우 부사장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손에 잡히는 금융상식"을 주제로 강연하며, 복잡한 금융 개념을 쉽게 풀어내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이어서 박곰희 대표는 '사회초

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방법'을 주제로, 적금·펀드·투자 등 기초 금융 지식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맞춤형 자산관리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들을 포함해 250여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Q&A 세션에서는 재테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금융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 전북은행, 도내 이전 금융기관들이 취업 상담부스를 운영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오택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금융 역량 강화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중기중앙회,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쉬움'

중소기업계는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전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8.0%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74%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를 염려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인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 국민연금공단, '2024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 전북 금융산업 발전 방향 모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3일 전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4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를 전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5회 지니(GENIE)포럼'의 주요 행사로서, 국내외 금융전문가·학계·대학생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북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해 국내 신생 창업기업과 세계 투자자들 간의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컨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 1은 벤처 캐피탈이 바



라본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세계 각국 VC들의 발표로 행사의 막을 열었다.

발표는 권형민 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팀장의 'KDB 산업은행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이상원 우리자산운용 본부장의 '해외 VC가 운용하는 국내 스타트업투자 펀드 소개'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방법과 사례'에 대한 패널토의가 열렸다.

세션 2에서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탄소중립 투자 트렌드와 리더십 얼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ESG 투자를 늘리고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참석자들이 '글로벌 캐피탈 마켓에서의 탄소중립과 자산운용'을 주제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탄소중립과 자산운용·ESG 투자관점에서의 전북지역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유튜브(지니포럼)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욱기 기자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사 양성 교육 성황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축산담당자들의 기술 보급 업무 능력 향상과 자력취득을 돕기 위해 '축산기술사 전문가(축산기술사) 양성 교육'을 23~24일 이틀간 본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에서 진행했다.

축산기술사는 축산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등을 비롯한 관련 지도, 감리 등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36년간 191명만이 합격했을 정도로 축산분야 최고의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술 보급 및 현장 실무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40세 전후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현재 지방농촌진흥기관 내 축산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18명으로 평균연령은 50.4세이다.

축산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6명의 강사진은 축산 핵심 기술과 자력취득 방법을 교육했다. 지난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사 2명은 최근 시험 유형과 준비 경험을 교육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교육은 △축산업 현황 △가축 개량 및 육종 △시설 환경 △사료조각물 △가



공 및 유통 분야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여 지도사는 "축산 업무를 담당할 지 5년이 넘어서 축산기술사 취득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축산기술사 취득으로 업무 역량을 높여 축산농가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실무자들의 축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축산 기술 보급 기술 설명회, 시범사업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축산기술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축산기술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활기업 축제서 투자유치설명회 가져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24일 개최된 활기업 축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기업과 함께하는 새만금 First City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수변도시를 기업지원 특화 도시로 변모시킴과 동시에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수변도시는 총 200만 평 규모로, 계획인구가 당초 계획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3만9,000명의 대규모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탄생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변화하는 도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수변도시는 정주



형 주거특화지구 등 네 가지 특화구역으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이며, 교육, 주거, 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